

“편견도 청소… 깨끗한 도심 뿌듯합니다”

2018
이들이 있어 행복하다

❶ 환경미화원 전문천 씨

광산구 15개 구역 순환근무
하루 평균 100km 돌며 청소
안전 위해 인력충원 시급
“응원해 주는 가족 큰 힘”

“환경미화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말로만 대책을 세울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지난 5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월전동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차고지에서 만난 환경미화원 전문천(50)씨는 일을 마친 직후라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해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산구 송정동 일대를 돌며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뒤 남구 양곡동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실어날랐다. 5t 트럭으로 3차례나 수거현장과 위생매립장을 오갔으니, 이날 옮긴 쓰레기양은 15t에 이른다.

광산구에서는 전씨처럼 직원 140여명이 쓰레기수거차 49대에 탑승,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심 곳곳을 청소하고 있다.

운전하는 인원을 제외한 실제 수거 인원은 100여명으로, 송정동과 첨단지구, 수완지구 등 15개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전씨는 “요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거 차량의 하루 이동거리는 100km 안팎이다.



지난 5일 만난 광주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전문천씨는 굳이 쓰레기 수거차량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했다. 쓰레기 수거차에 부착된 ‘빨리 빨리 보다는 안전하고 깨끗하게’라는 문구로 자신들의 소망을 말하고 싶어서다.

차량과 함께 이동하는 환경미화원은 적재함 뒤쪽에 매달려 30km, 뛰어서 15~18km를 이동한다”면서 “쓰레기 수거 장소만 출잡아 수백군데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를 하던 전씨는 지난 2006년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환경미화원을 지원했다. 어느덧 경력도 12년차나 됐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던 광산구 쓰레기 수거 업무는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공단 직영 방식으로 바뀌면서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는 게 전씨의 설명이다.

전씨는 지난 2016년부터 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아 동료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서구와 남구 소속 동료가 작업 도중 연이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백방으로 뛰고 있다.

전씨는 각종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인력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하루라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쌓이니 환경미화원들은 쉴 수가 없다는 게 전씨의 주장이다. 월요일의 경우 쓰레기 수거량이 평일 1.5배에 달할 정도다. 월세 없이 일해야 겨우 치울 수 있는 분량이다.

전씨는 “명절 당일에만 쉬어야 하는 근무일정 탓에 제대로 된 성묘를 하지 못한 다”며 “동료들 사이에선 ‘환경미화원들은 조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의식향상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전씨는 “유리나 이쑤시개 등 뽕뽕한 물건은 분리해서 버리고 한 손으로 들 수 있도록 표시선 기준에 맞춰 종량제 봉투만 묶어줘도 일이 훨씬 수월하다”고 했다.

환경미화원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수거

작업을 본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릴 때다.

전씨는 “예전 선배들은 부끄럽게 생각해 직업을 숨기는 일도 있었다”면서 “그래도 대학생이 된 자식들이 아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많은 힘이 되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광산구 선운지구에 살고 있는 전씨는 또 “일을 끝마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깨끗해진 거리를 볼 때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혔다.

전씨는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다. “우리를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수준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몸은 더러울지 몰라도 그 어떤 일보다 꼭 필요하고 정직한 일입니다. 쓰레기 수거차 때문에 차가 밀리더라도 조금 더 우리 일을 이해하고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글> /글·사진=김용희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녘 17:37

달돋이 --:--
달지름 12:00

추위저요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 오는 곳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 주	흐리고 눈	3/7	보 성	흐리고 눈/비	3/7
목 포	흐리고 눈/비	3/6	순 천	흐리고 눈/비	4/8
여 수	흐림	4/8	영 광	흐리고 눈/비	1/4
나 주	흐리고 눈/비	2/5	진 도	흐리고 눈/비	5/6
완 도	흐리고 눈/비	4/7	전 주	흐리고 눈/비	1/4
구 레	흐리고 눈	1/6	군 산	흐리고 눈/비	1/4
강 진	흐리고 눈/비	4/8	남 원	흐리고 눈/비	1/5
해 남	흐리고 눈/비	4/6	축 산도	흐리고 눈/비	4/6
장 성	흐리고 눈	2/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5	서~북서 1.0~2.5
남해 앞바다	북~북동 1.0~2.0	서~북서 1.5~3.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	서~북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1.0~2.0	서~북서 1.5~2.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5~2.5	북서~북 2.0~4.0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41 19:12	11:45 --:--
여수	01:27 13:48	07:22 20:00

◇주간 날씨

9(화)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3	-3/0	-7/-1	-8/0	-5/4	-4/7	0/9

광주 아동학대 1년만에 2배 이상 급증

지난해 광주 456건·전남 585건

고준희양 유기 사건과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등 부모의 폭행·유기로 인한 참극이 잇따른 가운데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지난해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 배 가까이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647건으로 2016년 상반기 8972건과 비교해 18.7%(1675건) 급증했다.

남구, 대촌동 압촌·입암마을 교통불편 개선

10일 715번 마을버스 개통

광주시 남구가 대촌동 압촌·입암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715번 마을 버스를 도입, 운영한다. 오는 10일 개통하는 715번 마을 버스는 대촌동 한일 베라체아파트~포충사~인성고~진월 대주아파트~월산사거리~롯데백화점~예술의 거리 입구 등 76개 정류장, 18.3km 구간을 운행한다. 이 노선을 오가는 마을 버스는 모두 7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679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가해자별로 구분해보면 부모인 경우가 7634건(71.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 등 대리양육자 1601건(15.0%), 친인척 476건(4.5%)이었다. 발생 지역은 경기가 2355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서울 1096건 ▲부산 789건 ▲전북 782건 ▲경북 737건 ▲전남 585건 등의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전년 상반기 170건보다 168.2% 늘어난 456건이 발생했고 전남·서울·인천·충북은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줄었다. /이종형기자 golee@

A·B형 인플루엔자 유행…초·중·고생 독감 주의보

의심환자 1000명당 72명…예방접종 지금이라도 맞아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 겨울에는 A형·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례적 현상도 지속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4주만에 6.2배 규모로 늘어나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 최근 집계인 52주차(12월 24~3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71.8명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다. A형·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례적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52주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보면 검출된 187건 검체 중 A형은 81건(43.3%), B형은 106건(56.7건)으로 동시에

유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통 12~1월엔 A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2~3월쯤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한다.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 대개 국내에서 인플루엔자는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유행을 지속한다. 만약 영유아와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는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회복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진표기자 lucky@

“대머리 채용거부는 차별” 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기계기사 최모씨가 건물 시설 관리를 하는 A회사에 입사 지원했다가 대머리라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이 회사에 외모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인권위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신체 조건임에도 불이익을 주거나 가발 착용 의사를 확인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연남뉴스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정통 차이나이스 레스토랑 **홍메이**가 오픈하였습니다.

“최고의 음식”“최상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정통중화요리 | 가족모임 · 비즈니스모임 · 단체석완비

紅梅 홍메이

- 각종 행사를 위한 품격있는 장소 -

화순 엘리체 골프장 주방장이 직접 요리하는 품격있는 중국집!

예약문의. 062)571-5531

광주시 북구 설죽로 419(삼각동 507-5)
일곡 엘리체 프라이م APT 상가 115동 2F